

[장학회 1편] “2021년 파산”

## KBS노조와 사측이 얘기하지 않았던 진실

### “2021년 파산” ..재정 실태 한 번도 공개 안해

설마 했던 장학회의 실상이 가히 충격적이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2021년 파산”이다. 이대로라면 피할 수 없다.

### 향후 수지 추정

(단위 : 백만원)

구 분	수 입 [A]			지 출 [B]			잔액 [A-B]
	회비	수익사업	계	회비	장학금	계	
2017년	8,865						4,387
2018년	2,125	2,573	4,698	663	2,400	3,063	6,022
2019년	2,097	1,468	3,565	1,130	3,456	4,586	5,001
2020년	2,036	1,048	3,084	1,346	3,552	4,898	3,187
2021년	1,942	1,048	2,990	1,451	3,392	4,843	1,334
2022년	1,841	1,468	3,309	1,568	3,248	4,816	-173
2023년	1,720	1,048	2,768	1,621	3,056	4,677	-2,082
2024년	1,652	1,048	2,700	1,063	1,824	2,887	-2,269
2022년	1,841	1,468	3,309	1,568	3,248	4,816	-173
2028년	1,413	1,468	2,881	1,749	2,480	4,229	-5,293
2029년	1,292	1,048	2,340	2,838	3,856	6,694	-9,647
2030년	1,119	1,048	2,167	3,179	4,144	7,323	-14,803
합 계	30,739	16,829	38,703	20,485	37,408	57,893	

언론노조KBS본부가 장학회로부터 제출받은 ‘향후 수지 추정’을 보면 2022년 장학회의 잔액은 ‘-1억7천만 원’이다. 통장이 바닥난다는 얘기다.

또 다른 자료를 보자.

# 감 사 의 견 서

2018. 2.

한국방송공사 공제회 감사 유재복

한국방송공사 공제회 감사 곽상곤

## < 연도별 장학회 당기순이익 현황 >

(단위 : 만원)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당기순이익	-243,951	-246,081	-4,890	2,184

※ 2016년도와 2017년도는 정년 연장으로 인한 퇴직인원 감소로 인한 일시적 효과

KBS장학회는 주채원인 부대사업수익으로 장학금을 지급해야 하나, 부대사업수익이 지급해야 할 장학 재원을 충당하지 못해 회원들에게 반환해야 할 회비원금으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어 2017년말 현재 운영자금 누적 잔액은 440,824만원입니다. 이는 회비원금 945,804만원 대비 절반 수준인 바, 정년 퇴직이 본격화되는 2018년 이후부터는 회비원금이 지속적으로 줄어들어 2021년 경 회비원금이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2018년 이후부터는 회비원금이 지속적으로 줄어들어 2021년 경 회비원금이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 [ 장학사업 지속 여부 재검토 필요 ]

장학회 주채원인 부대사업수익은 장학금 지급액에 크게 못 미치고 있는 상황이며, 부대사업수익이 획기적으로 증대되지 않는 한 현재의 장학회 재원으로는 늘어나고 있는 장학금 소요재원을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부대사업 매출 증대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이와 연계하여 **장학사업의 지속 여부에 대한 재검토도 필요해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2018년2월 공제회의 감사의견서 중 장학회 부분이다. 2021년 장학회의 잔고는 '-1억5천만 원'이다. 이에 대한 감사의 의견은 명확하다.

“2021년 경 회비원금이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장학사업의 지속 여부에 대한 재검토도 필요해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라고 적시했다. 내부 감사조차도 사실상 장학회의 파산을 예고한 것이다.

언론노조KBS본부는 지난 4월 장학회 문제를 제기한 적 있다. 당시에도 장학기금 고갈 우려를 얘기했지만, 설마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그동안 장학회는 KBS노조와 사측이 운영위원을 맡아 운영해왔기 때문에 구체적인 재정 상태는 공개되지 않았다. 장학회 운영규정이 개정되면서 언론노조KBS본부도 이번 달부터 장학회 운영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됐고, 비로소 그 구체적인 수치를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장학회를 운영해온 KBS노조와 사측은 왜 그동안 한 번도 장학기금의 재정상태를 회원들에게 고지하지 않은 것인가. 또 명확히 파산을 경고한 감사보고서까지 공개하지 않은 것인가.

회원들이 자신이 낸 회비 원금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그 운용현황과 재정상태를 알아야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권리이다. 또 자산을 운용하는 주체는 회원들에게 정기적으로 공지해야할 의무가 있다. 1년에 한번 코비스에 '장학회 운영현황 공지'라는 것을 올렸지만, 여기에는 해당년도의 수입과 지출만을 공개했을 뿐 잔고현황과 향후 수지에 대해서는 알리지 않았다. 의도적으로 숨겨왔다고 볼 수 밖에 없다.

장학기금에 빨간불이 들어온 것은 운영 첫해부터이다. 2014년부터 무려 4년 동안 매년 재정 수지를 분석해 알고 있었으면서도 회원들에게 비밀에 부친 것이다. 다수의 회원들은 조금은 우려하면서도 '설마 원금은 받을 수 있겠지'하는 막연한 기대를 갖고 있었다.

장학기금의 설계에서부터 운영의 주체로 참여해온 KBS노조, 장학기금 운영의 또다른 한 축인 KBS공사, 그리고 KBS노조와 사측의 지휘를 받아 장학기금을 관리해온 공제회사무국 모두 명백한 직무유기이다. 장학기금은 그동안 KBS노조 소속 운영위원 3명과 사측 운영위원 3명으로 구성된 장학회운영위원회를 최고 의결기구로 운영돼 왔다.

다음편에 계속됩니다.